

민주노총·금속노조, 4월 24일 총파업 확정! 기아차지부도 4·24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선제 총파업'을 만장일치 결의하고, 4월 24일로 날짜를 확정했다.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계급 전체에 전면전을 선포한 지금,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들도 하나둘씩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전교조와 건설노조가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4·24 파업을 결정했다. 학교비정규직·서울대병원 등 노조도 잇따라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도 3월 3일 대의원대회에서 4·24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

이제 기아차지부처럼 민주노총의 핵심대오가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는 우리가 동참한다면, 총파업의 경제적·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파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목을 겨누는 박근혜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만큼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임금 삭감과 파견 확대는 박근혜가 작심하고 밀어붙이려는 핵심 공격이다.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법정 노동시간을 늘리고, 통상임금-임금 체계를 개악하라고 다시금 못을 박았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기아차 자본이 바라는 것이다. 사측은 지금 앞장서 성과연봉제 도입, 노동강도 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을 '배째라'며 버티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아랑곳 않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어야 정몽구도 막을 수 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도 무관심해선 안 된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위협받을 것이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의 요구는 바로 우리의 요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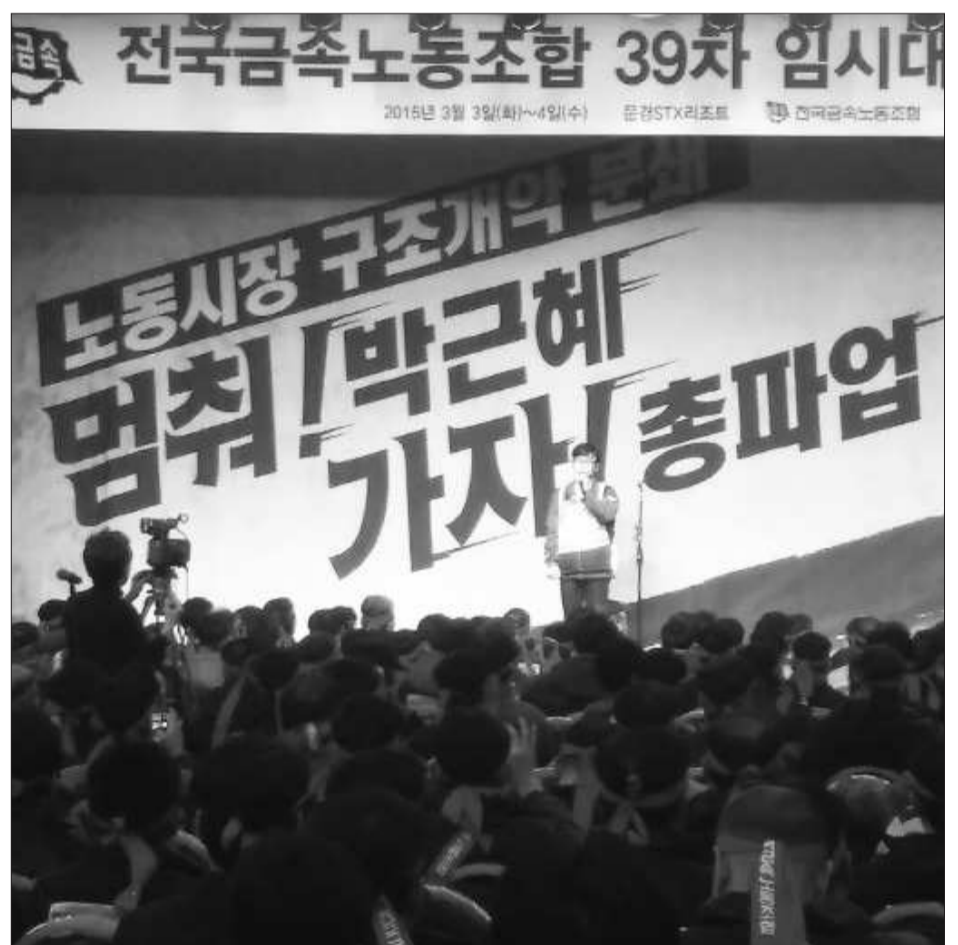
왜 4월 "선제 파업"인가?

정부는 3~4월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법 통과도 노리고 있다. 이런 정부를 놔두고, 임단투 때 가서 보자고 해선 안 된다.

'우리 노조는 덩치가 크니까, '단협으로 지키면 되지'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아무리 덩치 큰 노조도 고립대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걸고 선두에서 싸워야 대형 노조들도 지지를 받으며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나 국회 일정을 쫓다가 뒷북 치기보다 4월 24일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압박해야, 현대·기아차 자본에 맞선 투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국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투쟁을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시간

끌기와 이를 통한 김빠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아차지부는 민주노총의 결정대로 4월 24일 선제적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층 활동가들이 총파업 조직을 위해 나서자

박근혜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의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4월 24일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져 이후 부문별로 투쟁이 확대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층에서 활동가들이 실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뛰어와 한

민주노총은 지역-현장 단위의 '총파업 승리 실천단'을 결성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울산 현대차에서부터 현장순회와 출투를 하며 4·24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기아차 활동가들이 실천단에

참여해 적극 총파업을 조직하자. 4·24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이를 도약대로 삼아 온전한 8/8 쟁취, 통상임금 적용을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

우리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 시도에 투쟁으로 맞서자

정몽구는 지난해 주식배당금으로만 7백42억 원을 챙겼다. 10대 재벌 총수가 가져간 배당금만 무려 3천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박근혜는 정규직 “과보호”, 장기근속자 “고임금”을 비난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임금체계 개악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재직자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유리한 곳에서는 법적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 방침에 반대해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 최근 현대·기아차 자본이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는 것도 정부 공격과 맥을 같이 한다.

윤여철은 연초부터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속했던 3월 31일까지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측의 해태를 지켜보며, 협상장에서만 요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법적 요건도 완벽하지 않잖아.

소송과 소모적인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사측은 더기가 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 확대 요구도 무력화하려 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부터, 통상임금 확대를 위해 소송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투쟁을 돌아볼 때, 이런 주장은 옳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착착 공격을 쏟아가고 있는데, 이를 눈감고 일단 투 때 가서 싸우겠다고 해서는 우리의 임

금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악을 선도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핵심 타깃이 되곤 했다. 통상임금이 대표적 사례다.

이럴 때 잘 조직된 우리 노조가 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 앞장서야 한다. 이런 투쟁은 광범한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기아차지부와 5개 지회가 있을 곳은 협상장이 아니다.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을 요구해야 한다

사측은 내년 8/8 시행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후퇴시키려 한다.

최근 사측은 8/8 시행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을 뺏기기 해, 9만7천5백60대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일 반납과 노동시간 124.5시간 연장, 전공장 4.1% UPH UP, 화성 플라스틱과 차체 무빙라인, 소하 차체 무빙라인 외주화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8/9를 시행할 때 안전교육과 휴게시간, 아침조회 시간을 반납했고, 점심시간도 줄였고, 휴일

도 축소했다. UPH UP도 엄청 했다. 신입사원들에게는 임금 보전도 안 해줬다.

그런데 사측은 지금 8/8 도입을 위한다며, 또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이 분통 터뜨리는 이유다.

UPH-UP

지금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등을 비롯해 여러 조직들이 설비 투자와 공장 증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노동강도 강화와 외주화, 휴일 반납 등 사측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화성지회의 요구처럼 20만대 공장을 증설하려면, 최소 2~4년은 걸린다. 이는 내년 8/8 시행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무엇보다 생산량 보전 압박에 발목이 잡히면, 노동강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측의 공격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도 온전한 8/8을 지킬 수 없다.

사측이 설비를 투자하든 공장을 증설하든 그건 사측의 문제다. 우리는

생산량 보전 압박에 발목 잡히지 말고,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주 48시간에서 44시간, 42시간,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생산량 보전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임금 삭감-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을 관철시켜야 한다.

조합원 교육을 사측에 위임해선 안 된다

지난 1월 9일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압도 다수 대의원들은 노사 합동 교육에 반대했다. 그래서 “노사 합동 1박2일 교육은 중단하고, 지부-지회-교육위원 3주체가 모여 방향을 설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의 핵심은 노동조합 교육을 사측과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였다.

그런데 지부는 최근 대의원들이 반대한 노사 공동 교육안을 다시 들이밀었다. 이에 교육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두 차례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들어, 화성지회가 노사 공동 교육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심히 유감이다.

1박2일 노사 합동교육은 단협상

의 조합원 교육 시간을 사측에 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통상임금-임금체계-8/8 등 여러 문제로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지금, 노사 공동 교육은 투쟁의 날을 무디게 하거나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무디게 할 수 있다.

화성지회는 당장 노사 공동 교육 시도를 중단하고,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